

도청앞 13:30 집단발포 기록 있었다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④자료 은폐 및 왜곡

지금까지 신군부가 줄곧 부인해온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사실을 기록한 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5·18 진상규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위권 발동과 실탄지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전여단 상황일지는 군부가 ‘80위원회’(1985), ‘511연구위원회’(1988) 등을 통해 군 관련 자료를 대부분 삭제·왜곡했음에도 보존돼 국방부 특조위에 입수됐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담긴 ‘7공수 특전여단 35대대 상황일지’(1981년 6월 제출)에는 다른 군 문서와 달리 1980년 5월21일 오후

1981년 7공수 35대대 일지
1985년 ‘80 위원회’ 등서 삭제
11공수 대대장 수기 기록
병력을 무릎짜 자세 일제 사격

1시 옛 전남도청 앞 발포 상황이 나와있다. 기무사령부가 특조위에 제출한 이 문건 5월21일자를 살펴보면 ‘13 : 07 11여단지 역 에이피씨(장갑차) 및 버스 질주. 11여단 1명 사망 도청 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13 : 30 자위권 발동’, ‘13 : 50 지대장급 이상 실탄 20발… 도청 옥상 경계병 배치’ 등이 적시돼 있다.

당시 도청을 방호하던 7공수여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11공수여단과 교전한 상황으로, 11공수여단은 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행한 부대이다. 5·18 연구자들은 이 문건에 대해 당시 광주전 방면을 맡았던 7공수여단이 굳이 거짓 일지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황일지에 등장하는 ‘13 : 30 자위권

발동’은 사실상 도청 앞 집단발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군 관련 자료에서 자위권 발동이라고 적은 문서가 발견된 적은 없다.

특조위원들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 앞 집단발포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의 공식적인 자료는 도청 앞 발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신군부는 현재까지 굳이 사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에 함께 제출된 미공개 ‘11공수여단 진압작전 수기’에는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다. 11여단 62대대 이모 중령은 “운명의 13 : 00 정각…40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하게 됐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돌아보니 병력들은 횡대 무릎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진해 사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록했다. 상황일지와 체험수기를 종합해 보면 계엄군은 물러나 있던 군중에게 집단 사격을 했고 사실상 사격 명령인 ‘자위권 발동’을 뒤늦게 한 것이다.

하지만 80위원회가 만들어지던 1985년

을 기점으로 5·18 관련 군 문서 내용은 상당 부분 바뀐다. 511연구위가 1988년 작성해 제출한 ‘7공수 특전여단 35대대 상황일지’는 ‘폭도들이 산발적으로 도청을 향해 사격’이라고 내용이 바뀌었고 구체적인 시각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제목에는 ‘1차 작성 1985년’이라고 적어놓았다. 서주석 현 국방장관 등이 참여했던 511연구위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총 88건의 군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

511연구위는 체험수기도 군에 유리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그밖에 특조위가 확인한 31사단 전투상보, 20사단 전투상보, 특전사 전투상보는 각 부대사와 비교했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등 모두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 관계자는 “511연구위는 80위원회가 1차 왜곡한 군 자료를 꼼꼼히 재검토, 수정하며 5·18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80위원회 등은 5·18백서를 펴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백서의 존재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왜곡 조직들의 활동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5
해질 18:18

달출 09:11
달짐 21:33

우수(雨水)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0/11	보성	흐림	-2/9
목포	흐림	0/7	순천	흐림	1/11
여수	흐림	2/10	영광	흐림	-3/7
나주	흐림	-2/11	진도	흐림	1/8
완도	흐림	2/10	전주	구름많음	-2/9
구례	흐림	-3/11	군산	구름많음	-2/8
강진	흐림	0/11	남원	구름많음	-2/10
해남	흐림	0/9	축산도	흐림	2/5
장성	흐림	-2/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북동 0.5~1.5	앞바다 북동~동 1.5~2.5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앞바다(동) 북동~동 1.0~2.5 북~북동 1.0~2.5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5~3.0 북~북동 1.5~3.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28 21:52	04:13 16:38
여수	04:56 17:24	11:21 23:37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1/11	-2/6	-4/8	-2/8	-3/17	-1/10	1/11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5·18 특별법 통과

대국민 서명 28만 돌파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518진실규명대책위)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지난 13일까지 전국민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대국민 서명운동에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18기록관 홈페이지(www.518archives.go.kr/ 518spcial_law)에서 온라인 서명도 이뤄지고 있다.

또 광주시청 1층 시민숲과 KTX송정역, 금남로 지하상가 등에는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돼 길거리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5·18진상규명대책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종료된 후에는 모아진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7일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계자 중 일부가 불응하면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향의 情 안고 돌아갑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이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

광주·전남은 이번 주 평년과 비슷한 전형적인 늦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 3~12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최저기온 영하 3도~영상 2도, 최고기온 8~11도)과 비슷한 기온으로,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이번 주 내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 서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등 일교차 큰 지역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까지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예보했으며, 대기정체로 농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한영기자 young@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60m 이동

직립 위한 사전작업…6월 14일까지 마무리

지난해 4월 11일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해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가 316일 만에 자리를 옮긴다.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오는 21일 부두와 직각으로 세월호 선체를 이동시킨다.

세월호 선체를 작업하기 좋은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세월호 밑바닥(선저)이 바다 쪽을 향하도록 90도 회전시켜 바다와 60m 거리에 수평으로 위치시킨다.

이동작업에는 지난해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때 사용한 대형 구조물, 선박 등을 운반하는 특수장비인 모듈트랜스포터를 다시 활용한다.

이후에는 26일 철제 빔 등 관련 구조물 제작을 거쳐 다음 달 1일 직립 선체 보강을 마친다. 4월 10일까지 세월호에 수직 빔 설치와 5월 26일 목포신항과 4km 거리에 있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해상크레인을 가져와 작업 준비를 끝낸다.

해상크레인으로 세월호 철제 빔에 힘을 가해 실제 회전을 시키는 ‘디데이’(D-Day)는 5월 31일부터다. 1주일 안에 실제 직립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립과 정리 등 모든 작업은 6월 14일까지 마무리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063-835-4771